

# “삼시세끼 광양쌀 먹읍시다” 소비 촉진 총력

市, 쌀값 하락 따른 지역농민 보호 위해 판로 확보 박차  
출향인사 결연 맺고 대형 유통업체에 지역쌀 구매 호소

광양시가 올해 쌀 대풍년과 쌀소비량 감소 등에 따른 지역 농민의 쌀값하락 피해를 막기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시는 광양 쌀 판촉단 구성에 이어 ‘지역생산 쌀 구매 확대(패턴) 개선’과 ‘쌀 더 먹기 운동’을 적극 추진한다. 올해 광양지역에서는 1635ha의 면적에서 8862톤(조곡 1만 2308톤)의 쌀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중 쌀 유통량은 개인소비와 직거래 물량 2591톤(29%), 농협매입 2313톤(26%), 공공비축미 1606톤(18%), 학교급식 518(6%) 등이 예상되며 잔량은 1834톤(21%)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난해 기준 광양시민의 연간 쌀 소비량은 9895톤(전체인구 15만2000명×65.1kg)으로, 이 중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

소비량은 7124톤(72%), 수입쌀 등 타지역 생산쌀은 2771톤(28%)으로 광양 쌀 잔량을 크게 넘어선 상황이다.

광양시는 타지역에서 수입되는 쌀을 30% 정도 줄이는 반면 광양 생산쌀 소비를 늘리고 ▲다량소비처 관내 쌀 이용 공무원 담당제 운영 ▲출향인사와 자매결연 도시 광양쌀 판촉활동 적극 전개 ▲광양 브랜드쌀 판촉(택배)비 지원 강화 ▲쌀 소비 판촉활동 전개 등 쌀 소비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역 대형유통업체 및 음식점회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갖고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시는 또 광양쌀 판촉단을 구성해 지난 27일부터 대형 유통업체와 급식소 등을 방문, 광양쌀 소비 촉진과 판로 확보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광양쌀 판촉단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마케팅과장, 마케팅전략팀장, 광양농협 담당상무, 농촌지도사회장, 생활개선회장, 쌀연구회장, 한국농업경영인회장 등 8명으로 구성



광양쌀 판촉단들이 지난 27일부터 광양지역 대형 유통업체를 방문해 광양쌀 소비 촉진과 판로 확보에 협조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광양시 제공>

됐다. 판촉단은 또 동광양농협, 홈플러스, 트라이얼, 광양제철소 포스웰 등 4개소를 방문해 업체별 담당자와 광양쌀 소비를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

판촉단은 앞으로도 광양쌀 판로 확보와 소비 증가를 위해 유통업체, 급식소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병호 광양시 농산물마케팅과장은 “대풍과 쌀 소비 감소 등으로 쌀값 하락이 우려되면서 농민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면서 “광양시민 모두가 ‘삼시세끼 지역쌀 챙겨먹기’ 등 다양한 쌀 소비 운동에 동참해 자신의 건강도 챙기고, 지역 농업 발전에도 힘을 보태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 광양경제청, 율촌산단 입주 4개 기업과 395억 투자협약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율촌산단 입주 예정 4개 기업은 지난 26일 광양경제청 2층 상황실에서 395억원 규모의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6일 율촌산단에 입주할 4개 기업과 395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양경제청은 협약으로 모두 130여 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협약을 체결한 한성피앤에스씨는 4만9500㎡ 부지에 265억원을 투자해 특허 출원 중인 신기술 첨단제품인 다층 파이프 생산 공장을 건립할 예정이다. 광양경제청은 “이번에 투자하는 기업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배영제기자 byj@

부지에 105억원을 투자해 금속파렛트 생산공장을 착공했으며, 사업확장에 따라 이번에 추가로 7천800㎡ 부지에 5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밖에 율촌 1산단 자유무역지역에 입주를 희망하는 백년야채(주)는 6600㎡ 부지에 20억원을 들여 식물공장에 필요한 시설물을 생산해 전량 일본, 중국, 러시아에 수출할 예정이다. 권오봉 청장은 “최근 국내외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유망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유치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에 투자하는 기업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배영제기자 byj@

도시 디자인

친구 커뮤니티

### 회색빛 산업도시 이미지 벗고 활력 도시로

#### 광양 공공디자인 밝고 생동감 있게 가이드라인 수정

광양시가 회색빛 산업도시의 이미지를 벗어던지기로 했다. 각종 공공시설물을 현대적으로 디자인하고, 녹색 등 밝고 생동감 있는 색채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광양시는 29일 “공공디자인 각 분야의 디자인 원칙과 구체적인 세부 디자인 규정을 제시하는 ‘광양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표준디자인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광양시는 그동안 공공시설물의 목적과 위치에 관계없이 저명도·저채도 사용을 권장해 회색빛 산업도시의 부정적 이미지를 양산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시는 생동감 있는 색채를 활용해 활력 있는 도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도록 주요 공공시설물의 표준디자인을 수정했다. 생동감 있는 색채가 적용되는 공공시설물은 버스승강장과 자전거보관대, 가로등, 보도펜스, 버스안내표지, 사설안내표지, 벤치, 방향유도사인, 불라드 등 총 15종이며, 신규로 설치되는 시설물에는 수정된 디자인을 적용하게 된다. 시는 신규로 설치되는 시설물에는 조화로운 색상, 부드러운 선, 개방적, 친환경적인 형태의 키워드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광양시는 이번 표준디자인 수정을 통해 공공디자인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을

실정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생동감 있는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겠다는 복안이다. 시는 앞으로 지역내 특성조사와 함께 공공시설물 현황, 국내·외 공공디자인 사례를 분석해 광양시만의 특색 있는 색채를 개발·반영할 계획이다. 신대욱 부시장은 “미래 환경을 고려한 구조와 재료를 사용해 국제적 수준의 공공디자인 도시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라며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공공의 가치를 추구하는 조화로운 친환경적 도시이미지 창출에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 다문화가족 여성들 “감사해요, 광양제철”



광양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통합센터와 지구촌통번역자원봉사단원들이 지난 25일 광양제철을 방문해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있다.

### 직원들에 다문화 음식 대접

광양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통합센터(센터장 손경화)는 지난 25일 다문화가족으로 구성된 지구촌통번역자원봉사단과 함께 광양제철을 방문해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봉사단은 이날 그동안 자신들을 적극 지원해 준 광양제철 직원들에게 손수 만든 다문화 음식을 선물했다. 다문화가족 여성들은 “타국에 와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포스코 프렌즈봉사단의 도움이 정착하

는 데 큰 힘이 됐다”며 감사를 마음껏 전했다. 광양제철 ‘프렌즈봉사단’은 다문화가족으로 구성된 지구촌통번역자원봉사단과 함께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또 포스코 임직원들의 급여 1% 기부로 설립된 포스코1% 나눔재단은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한편 광양시에는 876세대 2524명의 다문화가족이 거주하고 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 경관 심의 대상 축소...광양시 조례 개정 시민불편 최소화

광양시는 “경관심의 대상 축소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조례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아 ‘광양시 경관 조례’를 전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광양시는 타시·군에 비해 경관심의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경관과 무관한 지중사업이나 경관 영향이 미미한 개간사업도 경관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경관 관련 규제와 통제가 과도하다는 지적

을 받아왔다. 특히 같은 사안을 다른 위원회와 중복 심의하는 사례들이 발생하면서 조례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개정된 주요 조례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삭제

▲위원회의 심의대상과 자문대상 적용 제외의 조항 신설 ▲주무부서 심의대상 삭제 ▲경관소위원회의 심의를 경관위원회의 자문으로 변경 등이다. 개정된 내용은 광양시 홈페이지(www.gwangya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3년

# 광주일보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 대(代)를 이어 읽는 신문

“애함”은 광주일보사가 발행하는 **이날** 문화예술큐메거진입니다.

지방지사 (061)		시내지역	
광 산 062)944-0444	남 원 시 063)626-1601	광 천 366-8375	
군 산 시 063)467-2500	순 창 군 063)653-0444	남 광 222-9440	
정읍 시 063)531-5544	서울보급소 02)313-5962	남 부 652-0175	
		동 광 264-2012	
		동 명 222-9054	
		동 부 225-6001	
		문 흥 267-4748	
		백 운 673-4698	
		봉 선 675-6530	
		북광주 525-3761	
		상 무 372-2352	
		서광주 369-0583	
		송 하 675-6805	
		신 안 512-1732	
		양 산 571-7658	
		오 치 266-7601	
		웅 봉 522-7752	
		우 선 512-8116	
		윤 천 371-9818	
		팔 곡 961-2339	
		중 앙 222-1896	
		중 흥 224-6804	
		진 월 673-1600	
		침 단 973-2900	
		장 평 224-8212	
		치 평 376-6511	
		풍 암 682-8112	
		하 남 959-1500	
		화 정 375-9662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